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석은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e-mail: sekim21@naver.co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anion Animals Culture and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ok-Eun Kim

*Pet Management Department, Hyeje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사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함께 하는 언택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 반려가족들과 함께 사는 비반려인들 까지도 상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홍성의견(義犬) 의견비가 있는 역재방죽생태공원과 홍성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령사회에 노인의 정서적인 안녕과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강구하여 고령화시대에 정서적인 안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석탄과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 발명의 1차, 컨베이어 벨트를 특징으로 하는 전기와 대량생산체제의 2차, 인터넷과 컴퓨터를 바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의 3차를 지나 인공지능 로봇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사회로 노령화하는 나라이다. 만65세 이상의 인구가 2017년 14.2%를 넘기면서 그동안 가장 빨리 고령사회로 노령화된 나라인 일본보다도 더 빠른 결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20%를 넘기게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2]. 이미 농촌지역에는 젊은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초고령사회가 된지 오래 되었다.

이러한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출산율까지도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시대를 넘어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는 2만\$ 시대를 지나 동물의 인격화가 진행되는 국민소득 3만\$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물론 ‘2020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기타’의 통계까지도 조사한다. 이는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으로 다가온 반려동물 문화산업의 발전을

2. 내포 문화와 홍성의 의로운 개 전설

홍성군에는 옛 이름의 홍주성 의견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이 이야기는 전북 임실군의 ‘오수개’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진화구주형의 전설로, 주변에 불이 났을 때 인사불성의 주인은 잠이 들고 의로운 개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어 온몸에 물을 묻혀와 주인이 누워있는 주변을 적셔 화마로부터 주인을 살린다는 이야기이다(그림 1). 이와 유사한 설화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22곳에 걸쳐 산재해 있다[3].



[그림 1] 홍성의견 의견비

옛날 홍주성(지금의 홍성) 역치고개 아래 동네(현재 고암리)에 사는 한 농부가 장에 가는데 집에서 먹이는 개가 따라왔다. 농부는 장에서 일을 마친 뒤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여 집으로 향하였다. 역재(역치고개) 마루턱에 온 농부는 잠시 쉬려고 길가 잔디밭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개는 잠자는 주인의 옆에 앉아 지키고 있었다.

얼마 후 개가 서쪽을 보니 산불이 나서 이쪽으로 타 들어오고 있었다. 개는 주인을 깨우려고 힘껏 짖어도 보고 옷을 물고 잡아당겨도 보았지만 술에 취한 농부는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주인의 둘레를 맴돌며 울부짖던 개는 부리나케 고개 아래에 있는 연못으로 달려갔다. 개는 연못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적신 뒤에 다시 주인이 잠든 곳으로 달려와 몸을 굴러 잔디에 물을 묻혀 불이 타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개가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니 타들어오던 불길은 농부가 누워 있는 곳을 비켜서 지나갔다. 이윽고 농부가 잠에서 깨어 보니 둘레가 모두 불에 탔는데 자기가 누운 곳만 타지 않았다. 이상하여 살펴보니 자기가 누웠던 곳의 잔디가 물에 젖어 있고 그 옆에는 개가 온몸이 물과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짐작한 농부는 개를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주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농부는 자기를 살리고 죽은 개를 길옆으로 잘 싸서 연못 안의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개가 죽은 날이 되면 먹을 것을 많이 싸 들고 개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연못을 '개방죽'이라고 하였는데 역이 생긴 뒤에는 '역재 방죽'이라고 하였다[4]



[그림 2] 개섬과 역재방죽생태공원

[그림 2]는 홍성의 의로운 개 이야기가 숨어있는 개섬과 역재방죽이다. 이 역재방죽은 멸종위기의 가시연꽃 등 자연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식물이 자라는 곳이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곳에 주인을 구하고 숨진 의로운 개가 잠든 '개섬'이 방죽의 중심에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Rome was not built in a day).” 문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하며 만들어진다.

충남 홍성군은 내포 문화[1]의 중심지로 도청 소재지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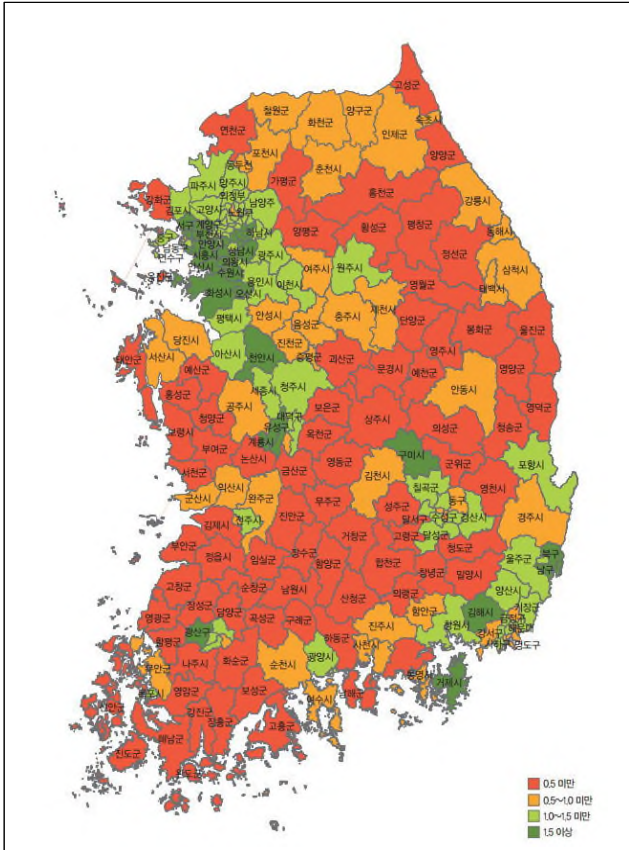
하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5]에 의하면 내포는 좁은 의미로는 당진지역을 말하지만, 넓게는 충남 북서부의 태안반도 일대까지를 포함한다.

3. 인구와 반려동물 문화산업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 경제대국 중 한 나라로 자리잡았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60년도 안되어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긴 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코로나 19 대유행 속에서도 수출주도의 한국 경제는 약간의 부침은 있으나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을 넘긴지 얼마 안 되었지만 2065년쯤이면 5천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그림 3)를 보면 빠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이다[6].

1960년대는 한국전쟁의 베이비부머[2]가 많이 태어나 국가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합계출산율[3]은 가입여성 1명당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7]. 젊은 여성들이 모여들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력권의

- 1) '내포'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포(鏡浦)'와 유사한 의미이다. '경포(鏡浦)'라는 단어에서 '포(浦)'의 의미는 포구(浦口)가 아니라 바다가 육지 쪽으로 쭉 들어와서 사주(沙洲)에 의해서 생긴 석호(潟湖)를 말한다. 이것이 후에 확대되어 삼교천 서쪽 지역, 즉 지금의 충청남도 북서부 지역을 내포 지역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김정호의 「청주도(靑邱圖)」나 리델 신부가 1866년 작성한 편지에 그려진 내포 지도, 조선 시대 실학자 이증환 [1690~1756]의 『택리지』 등을 보면 한결같이 삼교천 서쪽 지방을 내포 지역, 내포 반도(內浦半島)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내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내포가 최상의 지역이고, 가야산 앞뒤의 10개 고을을 내포라고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당진, 면천, 덕산, 해미, 서산, 태안, 결성, 홍주, 대흥, 보령 등지를 말한다. 고지도 내용과 내포 지역에 현재의 당진 지역인 당진과 면천 2개 고을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좁은 의미에서 내포의 중심은 당진 지역이다. 넓은 의미로는 충청남도 북서부 태안반도 일대를 내포라고 부른다. 조선 천주교구에서는 홍주(洪州)[홍성]를 중심으로 위쪽을 상부 내포(上部內浦), 아래쪽을 하부 내포(下部內浦)로 구분하기도 한다[5].
- 2) 전쟁후 베이비붐의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난 세대.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전후세대,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이른다.
- 3) 한 여자가 가입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그림 3]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7]

신도시들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층들이 ‘블랙홀’과 같이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 경쟁은 더욱 더 자녀를 낳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집중된 서울권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소멸위험지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으로 쇠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지방소멸로 가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8].

혼족은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로 새로운 생활양식의 사람들을 말한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1인가구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혼밥·혼술·혼놀 등 주로 혼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람보다도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함께 생활한다. 가족보다도 더 끔찍이 사랑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사는 것을 즐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는 노인도 많이 있어 노년의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건강이 염려되는 사회이다. 노년층을 위한 반려동물 양육을 권하고 더불어 지도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려동물관련 산업은 시장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반려

동물의 번식을 통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와 용품 등 다양하다.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은 이제 기본이고, 호텔을 비롯한 휴게시설은 물론 보험과 장례 등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어 그 시장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반려인도 천만 명을 넘어 1,5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간의 시장규모를 예측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돌발변수는 생각하지 않아 예측치보다는 약간 늦게 성장하지만, 오히려 언택트 시대가 반려동물의 파이를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비반려인의 배려가 없다면 반려인은 불완전한 양육 만족일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문제 등 수혜자의 납세는 새로운 논의가 요구된다.

4. 결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주인공인 영화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찾게 될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산업은 혼족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경험과 꿈을 키워주고 있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반려동물은 크나큰 선물이지만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은 물론 반려동물에게까지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하지 못한 연구는 향후 보충하여 틀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1] 장필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200호, 1-16, 2017.
- [2] 통계청, 「통계자료」, 2020.
- [3] 최래옥, “인간을 말하는 의견 설화 -그 분류와 해석-”,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pp.131-141, 1983.
- [4] 흥성문화원, “흥성의견설화”, 1997.
- [5] <http://www.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내포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2016.
- [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
- [8] 중앙일보, “의성·고흥군 30년 뒤 살아진다. 전남 전체도 소멸위기”, 2017. 9. 6.